9부능선 넘은 은산분리 완화… 20일 본회의 촉각

인터넷은행 지분 34%까지 허용
적용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해
추후 집권세력에 따라 변화 예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소유를 최대 34%까지 허용해 주고, 적용대상은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다.

시행령으로 대상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빗장을 전면 해제하는 만큼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7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연다.

큰 틀에서 여야의 합의사항은 기존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였던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34%까지 완화한다. 규제완화 대상도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재벌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 우려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이면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제 관건은 각 당내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비판적이었던 여당 내 강경파들이 합의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문제다.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다룰 경우 추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전면 허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금융노조 등과 함께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반대에 부딪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슬림K 신용대출과 일반가계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대출한도가 소진된 탓이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서 매월 대출한도를 설정한 뒤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쿼터제를 운영 중이다.

쿼터제로 여신규모를 조절했음에도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0.71%로 은행권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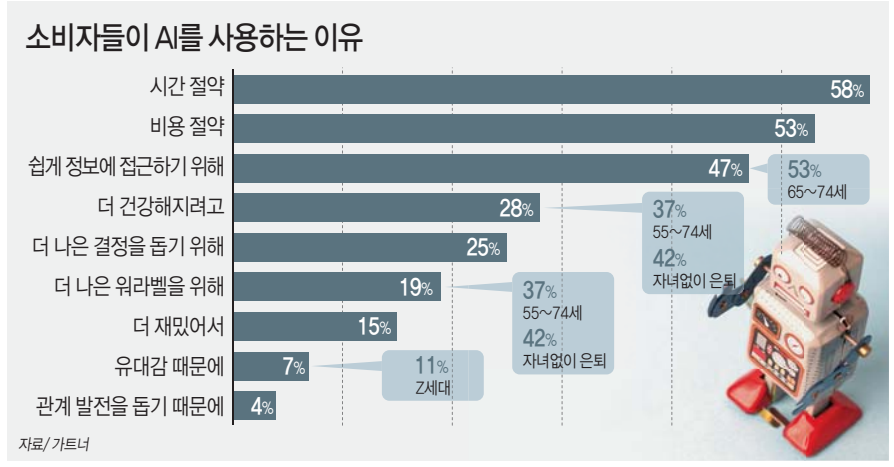
케이뱅크는 지난 7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요주주를 중심으로 300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코스피 2300선 '턱걸이' 17일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격화 우려에 하락하며 2,300선에 턱걸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24포인트(0.66%) 내린 2,303.01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AI, 왜 사용합니까? "시간과 돈 절약"

가트너 AI 인식 설문조사

실질적·중요한 이익 위해 사용
AI로 저가 물품·최적 경로 찾아



가트너(Gartner)가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한달간 진행한 인공지능(AI)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시간과 돈의 절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 리서치 디렉터 스테파니 바그다사리안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기타 개인적인 기술들을 사용하는 3가지 주요 이유는 사회활동, 자아상 투영, 재미"라며 "이와 대조적으로 AI의 경우 소비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중요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 응답자의 58%는 AI가 작업의 일부를 대신 수행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53%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면 AI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테파니 바그다사리안은 "일례로, 소비자들은 AI를 이용해 원하는 물품을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통행료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47%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AI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AI로 경로 및 교통편 찾기, 개인 소비에 관한 세부정보 파악 등이 해당된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AI가 본인의 활력징후를 분석하거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음성 혹은 안면을 인식하는 기능에는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52%는 AI가 자신의 표정을 분석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63%는 AI가 사용자에 대해 더 알기 위해 항상 듣고 있는 접근법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는 AI 사용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칠 영향에 대해 회의적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소니 뮬런 리서치 디렉터는 "응답자의 65%가 AI는 개인정보보호를 개선하기 보다는 파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IT 리더들은 다양한 관점과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참여에 대한 AI의 접근법을 개별 맞춤화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AI 툴을 이용해 개인정보보호와 투명성 목표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중고車시장 허위매물 미끼 OUT! SK엔카닷컴 '헛걸음 보상' 인기

국내 중고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업계에서는 허위매물 미끼 광고로 자동차 구입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허위 광고를 보고 업체를 찾은 소비자는 광고 속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만을 소개하는 딜러 탓에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에 SK엔카 직영 온라인 플랫폼 SK엔카닷컴의 '헛걸음 보상 서비스'가 출시 3년만에 등록대수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17일 SK엔카닷컴에 따르면 SK엔카가 지난 2015년 선보인 헛걸음 보상 서비스는 SK엔카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 등록된 차량이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10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헛걸음 보상 서비스로 등록된 차량은 2015년 월 평균 800대 수준에서 이듬해 900대 이상, 지난해는 약 1700대였으며 올해는 약 2600대를 기록하며 3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까지 헛걸음 보상 차량의 누적등록대수는 5만 6000대 이상에 이른다.

판매 차량에 대해 헛걸음 보상 서비스를 적용하겠다고 신청한 딜러도 서비스 시작 이후 꾸준히 늘어나 올 8월까지 누적 이용딜러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또 서비스 신청 고객 수 역시 월평균 기준 매년 최대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현재까지 누적 신청 고객 총 6500여명을 기록 중이다.

SK엔카 헛걸음 보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서비스 대상 매물의 상세 페이지 내 '방문 예약'을 클릭 후 방문 시간을 설정하면 된다. 딜러는 고객이 신청한 예약정보를 확인 및 수락하고 방문 시까지 해당 매물을 확보해준다.

박홍규 SK엔카닷컴 사업총괄본부장은 "헛걸음 보상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지며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딜러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엔카가 직영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우리는 헛걸음 보상뿐만 아니라 진단 및 보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거래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중고차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차 시장 규모가 2.2% 줄어든 반면 중고차 시장은 3.2%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운 기자 ysw@

8월 ICT 수출 200억달러 첫 돌파… 반도체·디스플레이 호조

수출증가율 2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호조 덕에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ICT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5.5% 증가한 20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ICT 수출이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집계를 시작한 1996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기존 최고 기록은 작년 9월 192억5000만달러였다.

수출 증가율은 2016년 12월 이후 21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지켰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의 판매 호조로 지난해 동기보다 30.4% 급증한 116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D램을 포함한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86억달러로 42.5% 늘었다.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수출에 힘입어 5.8% 늘어난 29억6000만달러를 달성했다. 반면 휴대전화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19.7% 줄어든 1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수출이 감소한 것은 올해 4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지역별 수출액은 중국이 20.0% 증가한 109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베트남(27억9000만달러·24.3%↑), EU(10억3000만달러·19.5%↑) 등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17억4000만달러·1.4%↓)과 일본(3억2000만달러·0.8%↓)은 감소했다.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ICT 수지도 역대 최고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달 ICT 수입은 0.4% 증가한 86억5000만달러다. 이에 따라 ICT 수지는 115억4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